

국립문화재발굴원 설립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재)영남문화재연구원과 청도군은 『국립문화재발굴원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9월 16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문화재발굴전문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도지역에 국립문화재발굴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과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1부는 ▲영남문화재연구원 박승규 원장의 ‘국립문화재발굴원의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김영화 경기문화재연구원 유물활용부장 ‘발굴기록 자료의 보관·관리현황과 활용대책’ ▲최종규 한울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발굴 보존유적의 현안 문제와 효율적 관리방안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국립문화재발굴원의 유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진행 되었습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영남문화재연구원 박승규 원장 사회로 주제 발표자와 박보현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박종섭 한국문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박윤제 청도문화원 원장, 임승경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학예관 등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금번의 정책 토론회는 국립문화재발굴원 설립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